

## 【 국내금융 뉴스 】

## 국제회계처리기준(IFRS) 도입 기반 구축

- 금융위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(IFRS)의 본격적인 도입에 대비하여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보험료 산출체계를 도입하고 재보험 회계처리 방법도 변경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(안)을 발표함.
  - 현재 보험료 산출방식은 3가지 예정기초율(위험률·이자율·사업비율)을 토대로 수지상등 원칙에 따른 계산식(3이원방식)을 이용하고 있으나, 선진국은 이미 '70년대부터 현금흐름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지 않고 있음.
  - 또한 3이원 방식은 유지율·판매규모 등 실제 현금 유출입의 요인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기가 곤란하고, 자의적 원가배분으로 인한 비판과 더불어 보험료 산출시 리스크 반영 제약으로 인해 창의적 상품개발을 저해하는 문제도 발생함.
  - 재보험 회계처리 방식에 있어서는 재보험계약으로 인한 출재분을 보험부채와 상계처리하고 있어 재보험 출재시 보험사의 부채(책임준비금)가 줄어들게 됨.
- 현행 3이원 방식의 가격요소(이자율·사업비율·위험률) 외에 유지율 등 다양한 미래현금흐름 요소를 반영한 개정(안)을 만들어 회사별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미래 최적 추정치 및 목표이익을 고려한 보험가격을 산출하도록 조치함.
  - 이로써 현금흐름방식을 통해 회사별 경험통계에 기초한 가정, 상품의 기대이익 및 가격전략 등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되어 회사별 보험료가 보다 차별화 될 것임.
  - 또한 금리 시나리오, 금리 변동에 따른 유지율 영향 등 가격요소를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어 다양한 옵션, 보증이 부가된 보험상품도 출시될 것임.
- 현금흐름방식의 보험료 산출체계는 국제회계기준(IFRS)의 부채평가방식이 미래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며, 이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(IFRS) 도입에 맞추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전적 준비가 될 것이라는 분석임.

(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,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, 10/30)